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이지성 (루터대학교 부교수)**

- I. 2020년 ‘청년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
- II. N포 세대의 특징들
 - 1. 밀레니얼과 N포 세대
 - 2. ‘헬조선’을 향한 혐오
- III. 두려움의 선택, 분노와 혐오
 - 1. 분노의 오류
 - 2. 시기심과 편가르기
- IV. 동전의 양면, 두려움과 희망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4>

* 본 논문은 2020년도 루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leejiesung@gmail.com

• ABSTRACT •

COVID-19, an ethical task towards ‘Fear’ and ‘Disgust’ of N-Po
Generation

Prof., Lee, Jie Sung (Luther University)

In 2020, the disaster triggered by COVID-19 prompted to expose potentially latent social issues in our society. Of them, issues involving the youth have arisen. Since the disaster, the lives of the youth have been highlighted including their attitude in dealing with the disaster to what they do in amidst of the pandemic, however mostly in a negative manner. Even prior, amid, and post the pandemic, the youth belong to N-Po Generation who are given up, abandoned and neglected. These youths are disgusted by ‘Hell Chosun’, a compound word likening Korea to Hell with no hope to live for, as they go through COVID-19 Red, a state of frustration exacerbated than that of COVID-19 Blue. The study hereof was conducted on the premise that the cause of the anger and hate are derived from fear and focused on the state of mi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generation amid the pandemic era. In particular, the study linked Martha C. Nussbaum’s discussion on emotions including Anger, Disgust, Envy, etc., with youth issues in Korean society and presented ‘Hope’ which sh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youth issues.

Key words: Millennial, N-Po Generation, Fear, Disgust, Envy, Hope, Martha C. Nussbaum

I. 2020년 ‘청년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

인류 역사상 역병이나 재난 앞에서 공동체는 잠재적으로 앓고 있던 약점을 드러내 왔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020년, 우리 사회는 두려움과 혐오에 사로잡혀 각자 도생을 위한 몸부림을 보였다. 지역과 종교, 인종과 세대들은 서로를 마녀 사냥하듯 힐난의 눈빛을 교환했다. ‘우환 폐렴’으로 불리며 중국과 지역에 대한 선 긋기를 시작으로 ‘신천지’와 ‘전광훈’은 한국 교회를 섬으로 고립시켰다.¹⁾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가 유럽 및 서양에서는 동양인을 향한 혐오가 두려움으로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묶어 버렸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조금씩 발화했던 세대 간 혹은 특정 세대를 향한 혐오의 불씨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신천지’에서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하던 2월 말, 한 일간지는 “신천지 60%가 20대...청년들은 왜 신천지에 끌릴까?”²⁾라는 기사를 통해 청년들, 특히 수능을 마친 19~20세 청년들이 상처와 고민을

1)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건너며 불편한 시선과 비난의 주인공이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신천지’ ‘전광훈’과 선긋기로 한국 교회가 이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괴물로 키운 극우 정치권과 극우 유튜버들의 ‘패륜적 동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전광훈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가 하루 이틀이었을까.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며 ‘순교’를 입에 올리는 그는 이미 이전부터 기독교를 소품으로 쓰고 있는 이해타산이 매우 능수능란한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태가 이쯤 되고 안팎으로 연을 맺고 있던 교회와 정치인들도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그들의 요란한 이별 소동이 그저 전광훈의 세포분열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이들은 언제라도 합체되어 보란 듯이 다시 광장에 뭉쳐 ‘빨갱이, 성 소수자, 난민’을 향한 ‘혐오’를 휘두르며 돈과 힘의 기생 전선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광훈 뒤에서 그림자처럼 숨어 있지만 코로나19 앞에서 한국 교회가 드러낸 모습은 또 다른 전광훈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대웅, 2020.09.20, 크리스천투데이, “NCCK ‘전광훈 폭주’, ‘국민의 힘’이 결자 해지해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249> (최종 검색일 2020.09.05.)

2) 김지아, 최연수, 2020.02.28, 중앙일보, “신천지 60%가 20대...청년들은 왜 신천지에 끌릴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17634>, (최종 검색일 2020.11.11)

상담하면서 신천지 복음방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밖에서는 직업도 없고 밖에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교회 안에서는 팀장, 부서장으로 인정받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신천지 성장의 원동력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기사들은 신천지를 향한 비난이 청년들이 아니라 지도부를 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신천지 속에서 발견한 청년들의 찬상은 어둡고 막막하기만 하다.

청년들은 ‘이태원 발 코로나’ ‘할로윈 발 코로나’ ‘클럽발 코로나’ ‘팬션 발 코로나’ 때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거리두기’ 실종의 주범으로 ‘젊으니까 괜찮은’ 청년들이 너무한다는 여론이 쏟아졌고 생각 없는 젊은 사람들의 객기가 K-방역을 무너트린다고 탄식했다.

그런데 가깝게 만나는 청년들의 면면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현실과 단절된 채 방에서 모니터로 소통하며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근근이 이어가던 아르바이트조차 잠정 휴업에 들어가 결국 휴학을 하고 콜센터, 택배 회사를 찾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신천지, 이태원, 클럽, 우울증, 청년 실업 등 청년들 앞의 부정적 수식어들이 끝이 없지만 어쩌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이미 미래 없음’³⁾이라는 재난을 살아 온 청년들의 문제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것 아닐까.

소위 1980년대~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⁴⁾라고 불리는 이들을 어떤 하나의 호칭으로 부르거나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다층적 상황과 경험을 고려할 때 인문학 뿐 아니라 사회,

3) 신형철, 2020.03.04, 경향신문, “신천지로 떠난 청년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042034005 (최종 검색일 2020.10.15)

4) 밀레니얼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출간한 Generations :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타파크로스, 『빅데이터로 보는 밀레니얼 세대』 북투데이 (서울: 북투데이, 2017) 253-254.

경제, 정치, 역사의 영역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 만하임은 세대란 ‘생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밀레니얼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과 공간의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특징을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세대주의(generationalism)가 세대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할 수도 있고 편견의 근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청년세대에 관한 담론은 실업과 고용불안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포기하게 되는 연애, 결혼, 출산 등 근대적 생애과업 달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의 청년들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 고학력, 고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낮은 고용률, 불안정 취업, 저임금, 높은 실업률, 주거 빈곤, 학자금 대출과 부채 등 사회로의 진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세대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통과하고 있는 시대, 특히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면면을 조심스럽지만 제대로 들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부르며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 심지어 희망, 그리고 또 어디까지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면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감하려는 작은 시도이다.

II. N포 세대의 특징들

1. 밀레니얼과 N포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5) 함인희,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3.

감에 현재 자신의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국과 중국의 밀레니얼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소비력은 부족하지만 ‘소비 능력’ 보다 소비를 이끄는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독립적인 것 보다는 연결되는 것을,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가치 중심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는 등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지내기도 하고 지역 간 다툼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촛불집회 같은 거대 목적을 위해서는 뜻을 모으기도 한다.⁶⁾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살기 보다는 체감할 수조차 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정식을 적용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중 김난도는 2017년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준거 집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나 가족의 칭찬과 지지에 매우 익숙하지만 외부 사회의 주목하지 않은 경쟁에 초조한 심리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다.⁷⁾ 함인희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우선 이들은 ‘거래적 계약의 특징을 보이는데, 기성세대가 장기 근속을 삶의 목표로 삼고 결과에 해당하는 포괄적 보상을 요구하는 ‘관계적 계약 행태를 보이는 반면, 짧은 근속 기간을 전제로 즉각적이며 구체적 보상을 요구한다. 둘째로 기성 세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향한 강한 소속감과 충

6) 애초에 미국이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력’ 때문이었다. 중국도 비슷한 특징으로 이 세대를 구분한다. 이들은 안정적 가정에서 가장 부유한 시절을 보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쇼핑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여겨졌다. 타파크로스, 『빅데이터로 보는 밀레니얼 세대』 254. 신용환 “이중적 관점으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와 거울을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2018), 355~364.

7)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 창, 2016), 241.

성심을 내면화 하는데 반해, 조직 보다는 자신의 일 혹은 업무에 강한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한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소위 ‘워라벨 (Work Life Balance)’을 추구하면서 일과 삶이 충돌할 경우 삶을 선택한다.⁸⁾

조한혜정과 엄기호는 이 세대가 ‘노력’을 ‘노오력’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관심을 둔다. ‘노오력’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면서 무리수를 두게 하고 초경쟁 상황을 초래하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넘나들게 하다가 결국 번아웃 시켜버린다. 즉 기성세대가 하라는 ‘노력’은 결국 ‘노오력’이라는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처럼 ‘노오력’은 단지 말장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둔 현실의 불평등 구조를 간파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기성세대 및 조직은 문제 해결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꿰뚫고 있는 통찰”⁹⁾인 것이다.

결국 ‘N포 세대’가 포기한 것은 사회이고 공공영역이며, 삶이란 각자 사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살아남는 ‘각자도생’의 현장일 뿐이지 공공적 해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을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라고 불편해 한다. 누군가는 실력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을 ‘약자’라고 해서 쉽게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아직 살 만하니까 조용한 것이라고, 방구석에 불만을 쌓아 놓지 말고 깃발 들고 광장에서 외치고 분노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지금 단순히 두려움 속에 분노를 삭히고 있는 것일까? 누스바움은 분노와 혐오를 구분하면서 분노는 주체를 대상에게 다가가게 하지만, 혐오는 그 둘을 가능한 멀어지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측면에서 분노는 주체와 대상을 만나게 하지만 혐오는 도망가거나

8) 함인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6.

9) 조한혜정, 엄기호 외, 『노오력의 배신』 (서울: 창비, 2016), 18.

회피해 버리게 한다. 지금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그리고 부정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혐오가 동원된 것”¹⁰⁾이다.

2. ‘헬조선’을 향한 혐오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단지 살기 힘든 곳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옥보다 끔찍하다는 조소가 담겨있다. 지옥은 죄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헬조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시되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보다 더 미개한 곳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2009년 무렵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에서 ‘14세기 헬고려’ ‘19세기 헬조선’처럼 왕조 말기 혼란상과 체제 파탄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이다가 세월호, 땅콩 회항, 경비원 분신 사건, 메르스 사태가 이어진 2014년~2015년 무렵에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기비하의 표현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¹¹⁾

국가라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 이해관계만을 쫓는 우리 사회는 고통과 절망, 체념과 분노가 얽히고설켜 ‘헬조선’을 낳게 된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은 데이터기반 컨설팅업체와 함께 기획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바 있다. 기사는 일베 사이트와 트위터 검색어 및 인터뷰를 통해 ‘헬조선’이 단지 취업난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헬조선 담론은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언임을 공론화했다.¹²⁾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정

10) 박권일, 한겨레신문, 2016.02.11,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0008.html> (최종검색일 2020.09.12.)

11) 박은하, 경향신문, 2015.09.04, “사회없는 국가, 희망 잃은 청년 ...한국은 지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2213005&code=940100 (최종검색일 2020.11.12.)

부의 무능함 속에서 ‘미개함’, 청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회, 아무리 ‘노오력’해도 탈출할 수 없는 금수저 흠수저라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우리 사회에 이슈를 제공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다.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는 5,000명의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치 의식을 조사했다.

‘탈조선’(“나는 기회가 되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헬조선’(“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다”), ‘수저론’(“흠수저는 금수저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흠수저’(“나는 흠수저이다”), ‘루저’(“나는 루저이다”)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탈조선’(68.6%), ‘헬조선’(69.7%) ‘수저론’(85.8%)에 동의하고 자신을 ‘흠수저’라 생각하는 답변은 77.8%에 달했다.

특히 청년세대 중 탈조선에 동의하는 비율은 75.4%, 헬조선은 80.7%에 달했는데 스스로를 ‘흠수저’라 생각하는 이들은 기성세대(81.3%)가 청년세대(70.8%)보다 많았다.¹³⁾ 즉 19~34세 청년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12) 박은하, 경향신문, 2015.09.04,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9042059215 (최종검색일 2020.11.12.)

13) 마경희 외 성평등·다양성위원회 포용성장연구단,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108~110 참조. 이 연구는 세부적으로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며, ‘나는 흠수저’에 대해 하층 청년 중 92.7%, 중상층 이상 청년 중 40.2%가 긍정했고 고졸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도 ‘탈조선’, ‘헬조선’, ‘나는 흠수저’, ‘나는 루저’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다만 ‘수저론’에 대한 동의는 대졸 이상의 청년 집단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표 1〉 세대별 성별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¹⁴⁾

(단위: %)

구분		탈조선	헬조선	나는 흠수저	수저론 동의	나는 루저
전체	계(n=5,000)	68.6	69.7	77.8	85.8	32.3
	여성	79.1	83.1	72.5	89.3	29.8
청년 세대	남성	72.1	78.4	69.4	81.7	34.1
	계	75.4	80.6	70.8	85.3	32.0
	χ^2	11.873**	6.092'	1.999	19.199***	4.518
	여성	64.6	64.4	80.6	88.9	29.9
기성 세대	남성	66.0	63.9	81.9	83.3	35.1
	계	65.2	64.1	81.3	86.1	32.5
	χ^2	5.690	18.310***	1.832	30.315***	12.363**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김기봉은 과연 ‘한국이 왜 헬조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객관적 현실이 아닌 한국인들 스스로 주관적으로 갖는 집단적 허위의식이라고 비판한다.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를 철폐한 후에 권위가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를 향한 무한경쟁에 들어섰고 결과적으로 평등주의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질투와 분노를 격화시켰다고 주장한다.¹⁵⁾ 김기봉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양극화라는 계급 모순과 세대갈등으로 보면서 계급 간 사회적 부를 둘러싼 파이나누기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헬조선 증후군 치유를 위한 인문학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맹단으로 제시한다.¹⁶⁾ 일면 타당한 분석으로 헬조선 증후군을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문화유전자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헬조선 증후군을 단지 권위주의와 물질의 분배에 기인한 한국인들 스스로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적 허위의식이라고 보기에는 청년 세대들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14) 위의 논문.

15) 김기봉 “헬조선과 인문학,” 『철학과 현실』 124(2020), 219~226.

16) 위의 논문, 223~228 참조.

물론 청년 세대의 사회 전반을 향한 분노 어느 시대에서나 불공정과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노력없이 지위 때문에 혜택을 보는 기득권층을 향해왔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들이 보이는 분노와 혐오는 사회 자체 즉, ‘헬조선’ 혹은 ‘헬조선’의 기득권층을 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 혹은 ‘청년 세대 자신’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공공부문인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 1900명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청원, 지역간 균형, 계층간 균형을 고려한 대학 입시 제도 반대 뿐 아니라, 여성 혐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 등이 대표적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분노와 혐오의 원인을 ‘두려움’으로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을 직면하지 않을 때, 분노와 혐오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누스바움은 신작 *The Monarchy of Fear : a philosophical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17)에서 미국인들이 선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법, 특히 두려움이라는 기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미국 사회 전반의 사례들을 들어 대중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혐오를 선동한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이전의 누스바움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방대한 인문학적 보고서인 *Upheaval of Thought : The Intelligence of Emotion* 의 핵심 주제들이 구체적 사례 속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지금같은 전 지구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강력한 권력자의 통치와 복종을 원하는지,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분노와 혐오가 투사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두려움과 분노, 혐오에 대한 상관관계의 논지에 따라 ‘N포 세대’와의 공감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17) Martha C. Nussbaum, *The Monarchy of Fear : a philosophical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NY: Simon&Schuster, 2018) 마사 누스바움의 ‘두려움의 군주제 : 우리의 정치 위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2020년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번역서가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 논문의 각주 표기는 원문과 대조한 뒤 번역서를 인용하였다. 마사 누스바움, *The Monarchy of Fear*,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서울: 알에이치 코리아, 2020)

III. 두려움의 선택, 분노와 혐오

1. 분노의 오류

누스바움은 전작 『혐오와 수치심』 『혐오에서 인류애로』에서 ‘혐오’ 감정이 도덕과 입법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질문하면서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하며 혐오 이슈를 다루고 있다.¹⁸⁾ 그녀는 원초적 혐오란 ‘배설물, 혈액, 체액 등 인간의 동물성과 관계된 요소에서 나타나는 원초적 감정으로 죽음이나 부패 등과 관계된다’면서 이러한 원초적 혐오가 이성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을, ‘투사적 혐오’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혐오는 분개나 연민과는 다르게 도덕의 범위에서 역할을 하는 감정도 아니고,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으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혐오는 혐오의 대상을 열등하게 여기며 특정 집단이나 행위에 혐오를 투사하는 경향, 즉 혐오의 대상을 배제하고 열등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경향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담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도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런데 ‘투사적 혐오’²⁰⁾는 다르다. 특권을 가진 다수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특정한 집단, 그것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혐오를 뒤집어 씌우는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으로 한 집단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8) 마사 C. 누스바움, *From Disgust to Humanity*,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강동혁 역, 9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6) 54. 본 논의는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지성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20.

19) 위의 논문 224.

20) 마사 C. 누스바움,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2015), 191.

누스바움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혐오’의 문제를 지목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투사적 혐오의 사례들이 끊임없이 목격되어 왔다.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 이주 노동자들, 무슬림 난민,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목한 대상은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여혐 남혐, 기회균등 대학 입시 대상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등 세대 구성원들 간의 혐오로 세포 분열하듯 확장되어 가고 있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분노의 오류’ 상황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경우의 오류 (the obvious errors)’인 어떤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행한 것인지,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분노는 엉뚱한 대상을 향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둘째로 ‘중요성을 오해하는 오류 (the status errors)’²¹⁾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류로서 대부분 분노의 오류가 여기에서 시작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혼동하여 다른 요인을 배제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세 번째로 ‘보복 오류 (the payback errors)’로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응보적 상황에서 발견된다. 지금 나를 억울하고 부당하게 만들었던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면 나의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누스바움은 특히 이 세 번째 오류는 정말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한다.²²⁾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은 세상에 대한 무력감 (helplessness and the ‘just world’)'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가난이 게으름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생의 원인을 타인에

21) 누스바움은 이를 지위의 오류 status error 라고 부른다. 부연설명을 피하기 위해 ‘의도를 잘못 파악한 오류’로 해석했다. 115.

22) 마사 C. 누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 115~116.

게 돌리며 ‘나쁜 사람’을 벌하면서 자신의 상실을 만회하려는 감정으로 드러난다.²³⁾

누스바움은 이 네 가지 ‘분노의 오류’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되거나 거짓 정보를 꺼내 들고 그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돌리고 난 다음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사소한 것을 과대평가하고 중요한 것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신들의 지위에 집착하는 정치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취업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민해 볼 수 있다.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거나 부당한 정책 등 원인이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²⁴⁾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럽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분노의 화살을 던질 대상을 기어이 만들고야 만다. 그리스 사람들은 악마를 만들기 쉬운 집단을 찾아 야만인들에게 화살을 겨눴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일하는 여성, 고른 기회를 적용받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냈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빌리지에서 일어난 ‘세일럼 마녀 재판’²⁵⁾ 으로 불리는 사건이 ‘분노의 오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85명을 체포해서 19명을 처형하는 등 25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판 마녀 재판으로 알려져 있다. 신대륙에 도착 후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혹독한 기후,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힘들었던 젊은 남성들이 모든 문제를 나이 많고 인기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택해 마녀로 비난한 끔찍한 일을

23) 누스바움은 이 네 번째의 사례로 부모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의사의 잘못으로 돌려 의료 소송을 하는 것이나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당한 정책을 원인으로 삼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의 책, 117.

24) 위의 책, 118.

25)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인 인간의 집단적 광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문학과 영화의 소재로 널리 쓰였다. 위의 책, 118.

버섯이 벌일 수 있었다. 우리 공동체는 질서 정연한 정돈된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분노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복잡한 진실 보다는 마녀를 불태우는 훨씬 간단하고 명확한 해결책의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한다.

누스바움은 분노가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이유에 대해 첫째, 인간은 타고난 취약성 때문에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는다면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두려움은 상대적 지위에 대한 집착에도 불을 붙인다는 점, 즉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노는 결국 보복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잘못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없애면 잃어버린 통제력과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에게 분노하고 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²⁶⁾ 그리고 누스바움은 불안과 더불어 혐오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감정인 ‘시기심’에 주목한다. 시기심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시기심은 오직 소수만이 좋은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기심과 편가르기

누스바움은 “시기심 (envy) 은 타인이 가진 것에 주목하고 자신의 상황은 그보다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불확실성에서 생겨난다”²⁷⁾고 본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시기심을 낳곤 한다. 이것은 결국 내가 잘살기 위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며

26) 위의 책, 119-121,

27) 위의 책, 181.

사회적 협력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게 된다. 시기심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질과 재화를 운 좋게 갖고 있는 라이벌에 대한 적대감을 초래하는데,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심리이다.

시기와 비슷하게 보이는 감정들이 있는데, 우선 모방 심리이다. 모방 역시 타인이 가진 것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데 모방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 없이 타인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기심과는 차이가 있다. 모방은 주체와 대상이 모두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성취에 집중하게 한다. 반면에 시기는 대부분 원초적인 두려움과 관련된 무력감에서 발생하고 라이벌이 가진 것을 자신은 가질 수 없다는 열등감을 동반하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²⁸⁾ 둘째로 시기심은 질투(jalousy)와도 차이가 있다. 시기와 질투 모두 가치있는 것을 소유한 라이벌에 대한 적대감은 공통적이지만 질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즉 시기심은 무엇인가 그 대상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질투는 가치있지만 불안정한 대상의 존재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질투는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라이벌이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두고 경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기심은 쉽게 충족되지 않는다.²⁹⁾ 지위, 부, 명예, 경제적 재화 등은 대부분 사회에서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위 불안에 기반한 분노'³⁰⁾는 시기심과의 구분이 쉽지는 않다. 지위 불안에 기반한 분노도 적대적 감정을 동반하는데, 이는 모욕이나 상처를 받았을

28) 누스바움은 이러한 시기심의 특징이 인기를 얻는 것, 부유해지는 것, 선거에서 이기는 것 등이 경쟁적인 제로섬 게임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위의 책, 178.

29) 위의 책, 179.

30) 위의 책, 179.

때 생겨난다. 반대로 시기심은 라이벌이 행복하다고 판단하면 느낄 수 있다. 라이벌은 어떤 모욕적 행동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시기하는 사람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누스바움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는 무력감을 기반으로 한 시기심을 루크레티우스의 글로 표현한다.

비슷한 연유로, 바로 그 두려움으로
시기는 그들을 쇠약하게 만든다.
보아라, 어떻게 이 남자가, 바로 그들의 눈 앞에서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모든 이들이 그의 기품과 명예를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어둠과 진흙에서 뒹굴며 불평하면서.³¹⁾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타인의 성공에 집착하고,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게 된다. 시기는 자신이 어둠 속에서 더러운 진흙에서 뒹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력감과 번뇌의 조합으로 만들어 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인 것이다.

루크레티우스³²⁾는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증오하는 이유는 뿌리깊은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두려움에서 비롯된 불안이 결국 타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넘어 부력하고 곤궁한 상태 속에 ‘시기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시기심이 처음에는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저것은 그들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한다”는

31) 위의 책, 누스바움은 이 책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인 루크레티우스(BC. 94~55)의 『만물의 본성에 관하여 *De rerum natura*』를 다수 인용하면서,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이론화한 심리학자라도 평가하고 있다.

32) 누스바움은 루크레티우스의 불안과 시기심에 대한 관심이 ‘죽음’에 한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시기심에 대한 감정의 분석이 매우 심리학적으로도 의미있다고 평가한다.

생각으로 쉽게 발전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들이 드러낸 감정들 중 ‘여성, 고른 기회 입시 대상자,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짓누르는 개인적 부정행위나 구조적 불평등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청년 세대들의 ‘N포’ 상황을 이러한 누스바움의 ‘시기심’의 측면으로 바라볼 때, 이들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10대의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보내면서 가족과 분리되어 무한경쟁 사회로 던져졌다. 대학입시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출발한 10대들은 이미 특권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로 구분되고 그 상황은 시기심에 불을 지폈다.

어둠 속을 뒹굴 수 밖에 없는 집단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집단은 이미 나뉘어진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혐오집단을 설정하고 편가르기하며 낙인을 찍어댄다. 결국 쇠약해진 이들의 체념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택은 구분과 분리를 동원한 ‘차별’이다. 이들은 서로를 ‘벌레’ 혹은 ‘충’이라 부르는데 익숙해 졌다. 혐오의 상징으로 발화된 이러한 호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을 띠게 된다. 다른 세대들이 아닌 같은 세대들 속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를 겨룬다. 금수저 흙수저 구분에서 시작해서 대학을 등급화도 모자라 전형별로 등급화하는 자기 파괴적 위계를 만들고 미디어는 수많은 과학과 통계를 동원해 담론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불안한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결코 사라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기심이 발화시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누스

바움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소외되었던 집단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통해 사회를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³³⁾ 이는 시기심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자라지 않도록 방지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내의 집단들을 구분하고 편가르기하는 만큼, 시기심과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혐오의 대상들은 세포 분열하듯 끝없이 자라나고 있다. 혐오는 순간의 위안일 수 있지만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독버섯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N포 세대들이 향한 그 투사적 혐오의 대상들과 구분지는 ‘차별’은 N포 세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분리시킨 대상들을 향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대상을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가 일단 그 투사적 혐오의 확장을 멈추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누스바움은 2017년 6월 15일 야구 경기 중 공화당 의원들에게 충격을 가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건넨다. 그녀는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의 증오에 자극을 받은 이 남성의 사건은 두려움과 분노, 혐오와 시기심이 어떻게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무기력해서는 안되고 무기력할 수도 없기 때문에”³⁴⁾ 희망과 사랑, 그리고 비전을 적어 나가야 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구호와 공약이 판치는 공적 영역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만날 수 있다.

33) 마사 C 누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 202~204.

34) 위의 책, 251.

IV. 동전의 양면, 두려움과 희망

‘희망’이라는 감정은 철학적으로 주요 담론으로 다루어진 바도 많지 않고 매우 모호한 개념이지만 가치있는 목표를 향한 행동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다. 물론 세상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도 상황도 제공하지 않는다. 즉 희망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스위치를 끄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 스위치를 켜면 ‘희망’이 가능해진다.³⁵⁾ 그런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듯이 ‘희망’과 ‘두려움’은 동시에 같은 것을 지향할 수 없다. 고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불안에 매달린 영혼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초조한 영혼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거부했던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희망’이 플라시보 효과에 그친다는 비판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키는 실천적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그 ‘희망’이 단순히 구호와 캠페인을 넘어서 하나의 대안, 혹은 사회 문제의 윤리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설득력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누스바움의 경우, ‘분리된 삶’과 ‘공동의 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희망’의 실마리로 청년들의 공공업무 의무 제도를 제안한다. 이는 다양성에 대한 체험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게 되면서 새롭게 국가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³⁶⁾ 이러한 미국 청년들을 향한 누스바움의 대안이 현실적으

35) 누스바움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잔에 물이 반이 찼다는 것과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고 양식이 어떤 행동을 준비시키고 실현시키는 데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257.

36) 누스바움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녀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소크라테스식 문답교육을 제시하고, 타고르가 인도에

로 적실한지 혹은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녀가 지목한 ‘분리된 삶’과 ‘공공의 선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현재 우리 사회,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N포세대의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 ‘N포 세대’라는 이름 앞에 서 본다. 과연 그들이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 3포, 4포, 5포 하나씩 늘어간 포기 앞의 숫자들은 애초에 ‘연애’ ‘결혼’ ‘출산’에서 시작되었다. 무조건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 죽을 때까지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이 전제가 된 상징적 용어였다. 또한 ‘포기’의 반대편에 ‘성공’이라는 짝이 될 수 없는 개념을 배치시켜 ‘갯지 못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실체 없는 포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개인과 사회의 합의로 만들어가는 ‘전제’의 전환뿐이다.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청년 세대들은 사회와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면서 끝없는 포기의 항목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전제’가 향해야 하는 방향인 ‘편가르기’에서 ‘함께’, ‘자기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삶이 바로 ‘희망’의 스위치이며, 그 불빛은 소란하고 거창한 공공 영역이 아닌 작지만 가치 있는 행동과 헌신 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대 청년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매우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코로나에 희망 뺀 20대’ ‘빛투에 목숨거는 20대’, ‘고용한파 20대 가장 추웠다’ ‘극단적 선택하는 2030 여성’ 등 최악의 뉴스들 속에 던진 “본인은 부모 세대보다 행복할

설립한 학교에서 예술을 통한 교육이 어떻게 상상력을 교육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타고르의 교육 방법을 보면 놀이와 예술 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함양하고 소크라테스를 따라 공감의 능력을 배양해 온 결과가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이지성, “타인의 고통, 연민을 넘어 공감으로” 『대동철학』 63, 대동철학회, (2013) 90-92.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4명의 청년들 중 3명(77%)이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부모보다 행복할 수 없다는 답변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82.3%), 집값 부담(76.3%), 부진한 경제 성장(54.3%) 상대적 빈곤(41.8%)의 순서였다.³⁷⁾

일자리도 집도 무엇 하나 확실 한 것이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N포 세대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미디어의 호명으로 규명된 ‘N포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2020년 초 겨울, 화염과 연기로 뒤덮인 아파트 화재 현장에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화물 사다리차 한 대가 불길을 뚫고 베란다에 매달려 구조를 외치던 3명의 목숨을 구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창틀 공사를 위해 사다리차 운전석에 있던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다리를 15층으로 올렸다. 유리 파편들이 떨어지고 연기가 치솟는 위험한 상황, 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 보다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29세의 청년은 “더 못 구해 너무 죄송하다”³⁸⁾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 초 노량진 공시생이었던 P는 대구로 달려가서 3개월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의료 자격증도 없고 전문적인 역할도 맡을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를 도와 배식을 하거나 폐기물을 치우고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대구에는 P와 같은 이름없고 자격증 없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주변 진료소를 지도 형태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과

37) 예병정, 한영준 외, 파이낸셜 뉴스, 2020.06.20 “대한민국 희망 진단서 20대 2020명에 묻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21841114610> (최종검색일 2020. 11.13.)

38) 김경수, YTN, 2020.12.02, “더 못 구해 너무 죄송합니다” 군포 아파트 화재 ‘사다리차 의인’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21716390606, (최종검색일 2020. 12.05.)

그들에게 서버 비용을 지원해 준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도 ‘청년’들이었다.

지난 6월 군을 제대한 J는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세워 둔 계획이 모두 엉망이 되었다. 친구들과 여행도 영어 학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마당에 투덜거릴 수도 없이 방에서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지냈다. 눈치가 보여 동네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갔지만 손님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많은 탓에 일주일에 한 번, 사장님 호출이 있을 때만 일할 수 있었다. 점점 손님은 줄어들고 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아르바이트생들도 점포를 떠났다. 그런데 J는 떠날 수 없었다. 본인마저 그만두면 사장님 혼자 힘드실까봐 계속 출근을 했다. J는 지금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29세 사다리차 운전기사 청년, 그리고 ‘소확행’에서 삶의 위안을 찾는 우리 주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N포’ 세대들은 스스로 ‘전제’의 전환, 즉 동전을 뒤집어 ‘희망’의 끈을 부여 잡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어느 때보다 암담한 시간이었던 2020년,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회, 특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구호나 지키지 못하는 약속, 혹은 플라시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재난은 적어도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들 특히 경제와 이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작용 기제가 될 수 있다”³⁹⁾는 리베카 솔닛의 주장을 되새겨 본다. 두려움과 분노로 점철된 폐허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공동체의 본질을 발현하고 생존을 위해

39) 레베카 솔닛, *A Paradise Built in Hell : The Extraordinary Communities that arise in Disaster*, 정해영 역, 『이 폐허를 응시하라』, (서울: 펜타그램, 2012), 453,

연대를 형성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⁴⁰⁾ 이야기들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N포 세대들을 향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때가 아닐까.

‘N포 세대’가 보여주는 혐오의 이면을 두려움으로 전제하고 시작된 본 연구는 사실 그 전제부터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시작된 작업이었다. 세대론과 헬조선 현상을 두려움과 분노, 시기심 각각의 감정들과 연계하여 풀어내는 과제 또한 출발선에 멈춰있다. 분석을 통한 실천 동력을 제시하는 구체적 대안제시도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았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 제도를 아우르는 윤리적 과제들 앞에서 우선 ‘N포’라는 담론 자체에 주목하고 싶었다. ‘N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청년 세대들과의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노력은 불편한 침묵 속의 선 긋기와 편가르기가 아닌 공공의 선, 즉 사회적 가치를 재설정하는 전제의 전환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독한 두려움과 혐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동전 하나를 던져 보았다. 희망이 손에 잡힐 때 까지 좀 더 세밀하고 정돈된 청년 세대의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40) 앞의 책, 14. 슬릿은 이 사례로 곧바로 무료급식소를 만드는 사람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 위험에 빠진 재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섬으로 몰려드는 보트들, 사고지역으로 달리는 기차를 멈추기 위한 전보를 보내기 위해 폭발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봉. “헬조선과 인문학.”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20.
-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 창, 2016.
- 누스바움, 마사 C.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2015.
- _____. *From Disgust to Humanity*,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6.
- _____. *The Monarchy of Fear : a philosophical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임현경 옮김. 『타인에 대한 연민』. 서울: 알에이치 코리아, 2020.
- 마경희 외. 성평등·다양성위원회 포용성장연구단,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 솔닛, 레베카. *A Paradise built in Hell : The Extraordinary Communities that arise in Disaster*, 정해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서울: 펜타그램, 2012.
- 서연주.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대중서사연구』 49(2019), 55-85.
- 신용환. “이중적 관점으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와 거울을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2018), 355-364.
- 이지성.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11-240.
- _____. “타인의 고통, 연민을 넘어 공감으로” 『대동철학』 63(2013), 81-102.
- _____. “공감의 길, 고통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69~98.
- 조한혜정, 엄기호 외. 『노오력의 배신』 서울: 창비, 2016.
- 타파크로스. 『빅데이터로 보는 밀레니얼 세대』 서울: 북투데이, 2017.
- 함인희.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11.
- 김경수. YTN, 2020.12.02, “더 못 구해 너무 죄송합니다” 군포 아파트 화재 ‘사다리차 의인’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21716390606, (최종 검색일 2020.12.05.)

- 김지아·최연수. 2020.02.28, 중앙일보, “신천지 60%가 20대“…청년들은 왜 신천지에 끌릴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17634>, (최종 검색일 2020.11.11)
- 박경미. 프레시안, 2012, 09.23, 프레시안, 박경미 “피 묻은 돈으로 인문학 살리면, 세상이 바뀌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6840#0DKU> (최종검색일 2020.12.05.)
- 박권일. 한겨레신문, 2016.02.11,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0008.html> (최종검색일 2020.09.12.)
- 박은하. 경향신문, 2015.09.04,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려이 필요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9042059215 (최종검색일 2020.11.12.)
- 박은하. 경향신문, 2015.09.04, “사회없는 국가, 희망 잃은 청년 …한국은 지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2213005&code=940100 (최종검색일 2020.11.12.)
- 신필규. 오마이뉴스, 2020.03.17, “내가 전염시킬까봐 두려워” 여기 의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22607 (최종검색일 2020.11.15.)
- 신형철. 2020.03.04, 경향신문, “신천지로 떠난 청년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042034005 (최종 검색일 2020.10.15)
- 예병정·한영준 외. 파이낸셜 뉴스, 2020.06.20 “대한민국 희망 진단서 20대 200명에 묻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21841114610> (최종검색일 2020.11.1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K ‘전광훈 폭주’, ‘국민의 힘’이 결자 해지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20.09.0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249> (최종 검색일 2020.09.05.)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된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드러내게 했다. 그 중 청년 세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청년들이 재난을 대하는 태도부터 재난 속 청년들의 모습, 재난 이후 청년들의 삶이 조명됐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재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청년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외면당하는 ‘N포 세대’다. 이들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 증상을 겪으며 헬조선을 혐오중이다. 본 논문은 그 분노와 혐오의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전제하며 팬데믹 시대 속 청년 세대들의 특징과 감정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누스바움의 분노와 혐오, 시기심 등의 감정에 대한 논의를 한국 사회 청년의 문제와 연계하고 그녀가 제안하는 ‘희망’의 가능성을 청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밀레니얼, N포세대, 두려움, 혐오, 시기심, 희망, 누스바움
